

研究史 및 資料

韓國 《史記》 研究 論著 目錄(2)

— 《사기》 연구논문 목록(1971~2022) —

제 해 성*

<目次>

I. 머리말	4. 《史記》의 文學 研究
II. 《史記》 研究論文 目錄	5. 《史記》의 歷史 研究
1. 司馬遷의 生涯와 思想 研究	6. 《史記》의 文化, 比較, 影響 研究
2. 《史記》의 文獻 研究	
3. 《史記》의 語學 研究	III. 맺음말

I. 머리말

기원전 1세기경 중국 前漢의 太史令 司馬遷이 편찬한 중국 최초의 紀傳體 正史인 《史記》가 세상에 나온 지 약 2,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漢字文化圈의 지식인들에게 훌륭한 고전으로 평가받아 많이 읽히고 또 지속해서 연구되고 있다. 필자는 일찍이 관련 학회의 요청으로 세 차례에 걸쳐 중국과 대만 학계에 한국의 《사기》 연구 현황을 소개¹⁾한 바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 계명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교수

1) 관련 내용은 <韓國 《史記》 研究 論著 目錄(1) : 《사기》 연구서 목록(1971

지의 국내 관련 연구성과를 추가 수집 정리하여 1971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구논저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중에서 지난 ‘上篇’에 이은 ‘下篇’에 해당하는 ‘《사기》 연구논문 목록’ 중심의 본 ‘연구사 및 자료’가 앞으로 국내외 관련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60년대부터 국내 학자들은 중국의 학술문화를 연구하는 데 상당한 정력을 쏟았고, 그 결과 많은 학술적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1990년대 발행한 《韓國中國語文學研究論著目錄(1945~1990)》²⁾과 《韓國中國學研究論著目錄(1945~1999)》³⁾의 조사 결과를 보면, 1970년대 이전 국내에서 사마천과 《사기》에 관한 연구는 단 한 편의 논문이나 학술서도 나오지 않았고, 대학 교재인 ‘동양 문화사’나 ‘중국 문학사’ 등에서 다룬 일부 관련 서술이 거의 전부였다. 1958년 대구대(영남대 前身) 사학과 홍순창 교수가 《大邱大學學報》 제32호에 〈司馬遷과 《史記》〉를 발표하였지만, 전문 학술논문으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국내의 사마천과 《사기》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1971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1년부터 2010년까지 40년간 국내에서 간행한 각종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논문은 이미 100편을 넘었으며, 석·박사 학위논문(한국 학생의 중국·대만 학위논문 포함)도 30여 편이나 나왔다. 그 수량이나 연구범위 및 내용 면에서 모두 크나큰 발전을 했으며, 학술연구의 방법이나 수준 면에서 새로운 한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II. 《史記》 研究論文 目錄

1971년부터 2022년까지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사마천과

~2022)), 《中國語文學》(영남중국어문학회) 제92집(2023.04.) 참조.

2) 서경호 편, 서울 : 정일출판사, 1991.

3) 서경호·김시준 편, 서울 : 솔출판사, 2001.

《사기》 관련 연구논문(석·박사 학위논문 포함)의 주제를 크게 ‘사마천의 생애와 사상 연구’, ‘《사기》의 문헌 연구’, ‘《사기》의 어학 연구’, ‘《사기》의 문학 연구’, ‘《사기》의 역사 연구’, ‘《사기》의 문화, 비교, 영향 연구’ 여섯 종류로 분류하고, 논문의 저자, 〈논문명〉, 《논문집》(발행기관), 권호, 연도순으로 정리한 목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司馬遷의 生涯와 思想 研究

- 이장우, 〈《漢書·司馬遷傳》考釋〉, 《中國文學報》 第1輯, 1974.
- 정두희, 〈《史記·伯夷列傳》에 대한 一考察: 司馬遷의 思想 傾向〉, 《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서울: 일조각), 1979.
- 李寅浩, 〈司馬遷述儒道法思想之研究〉, 臺灣大學 中文研究所 碩士學位論文, 1985.
- _____, 〈司馬遷의 思想淵源〉, 《中國語文論叢》 第1輯, 1988.
- _____, 〈司馬遷의 黃老思想〉, 《道教學研究》 第14輯, 1996.
- _____, 〈《史記·伯夷列傳》“其重若彼, 其輕若此”考〉, 《民族과 文化》 第7輯, 1998.
- _____, 〈《史記》 性格에 대한 一考察〉, 《中語中文學》 第22輯, 1998.
- _____, 〈司馬遷의 孔子觀〉, 《民族과 文化》 第8輯, 1999.
- _____, 〈《史記·伯夷列傳》“載籍”二字韓譯考〉, 《中語中文學》 第26輯, 2000.
- _____, 〈文史哲論《史記·伯夷列傳》〉, 《中國語文論叢》 第24輯, 2003.
- _____, 〈《史記》의 虛構性과 司馬遷의 人生觀: 〈蘇秦·張儀列傳〉을 중심으로〉, 《中國語文論叢》 第28輯, 2005.
- 박재문, 〈《史記》에 나타난 ‘삶의 智慧’〉, 《道德教育研究》(한국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회) 第5輯, 1993.
- 김성환, 〈司馬遷의 經濟思想〉, 《全州史學》(전주대) 第5輯, 1997.
- 한재환, 〈司馬遷의 ‘士’ 觀念과 立言意識 研究〉, 연세대 대학원 碩士學位論文, 2000.

- 서원남, <《貨殖列傳》中所顯的司馬遷的經濟思想>, 《中國語文學論集》 第31號, 2005.
- 노운희, <司馬遷의 生涯와 作品 研究>(번역 논문),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碩士學位論文, 2007.
- 강현정, <司馬遷의 人間觀 研究>, 울산대 교육대학원 碩士學位論文, 2007.
- 심경호, <《史記》: 發憤하여 이루어 낸 人間 省察의 歷史>, 《문화와 나》(삼성문화재단) 第86號, 2008.
- 방호범, <司馬遷의 歷史認識과 哲學思想>, 《人文論叢》(경남대) 第23輯, 2009.
- 김창규, <司馬遷의 感性和 《史記》>, 《歷史學研究》(호남사학회) 第37輯, 2009.
- 김영인, <司馬遷 經濟思想 研究>, 경상대 대학원 博士學位論文, 2009.
- 이하정, <司馬遷의 《史記》 著作에 관한 研究>, 전주대 교육대학원 碩士學位論文, 2010.
- 정영근, <《史記列傳》의 職業思想>, 《韓國思想과 文化》 第69輯, 2013.
- 이황진, <司馬遷의 苟活과 屈原의 死節에 대한 考察>, 《人文論叢》 第34輯, 2014.
- 문혜정, <司馬遷 ‘富’ 意識의 現代的 受容 : 《史記》 <貨殖列傳>을 중심으로>, 《中國人文科學》 第56輯, 2014.
- 이승수, <孔子에 대한 司馬遷의 疑問과 反語的 確信>, 《漢文教育論集》 第42輯, 2014.
- 권영득, <子長 司馬遷의 貨殖思想에 나타난 行政理念 研究>, 가천대 대학원 博士學位論文, 2017.
- 김원중, <《史記》 <貨殖列傳>을 통해 본 ‘富’와 權力的 關聯 樣相>, 《東洋學》(단국대 동양학연구원) 第66輯, 2017.
- _____, <司馬遷의 經濟觀에 관한 몇 가지 檢討 : 經濟地理와 都市經濟에 따른 致富 樣相을 중심으로>, 《中國學》 第69輯, 2019.
- 김덕삼·이경자, <司馬遷의 삶과 教育 研究>, 《人文學研究》(인천대) 第30

輯, 2018.

- 김상규, 〈司馬遷 經濟思想의 經濟 教育的 含意〉, 《經濟教育研究》(한국 경제교육학회) 第25卷 第3號, 2018.
- 김병준, 〈司馬遷의 批判的 《論語》 읽기와 그 敍事: 〈學而〉篇 ‘有子曰’ 의 事例〉, 《大同文化研究》 第117輯, 2022.

2. 《史記》의 文獻 研究

- 徐元南, 〈論清代的《史記》研究〉, 北京大學 中文系 博士學位論文, 2002.
- _____, 〈漢-唐間 《史記》 注釋에 대한 考察〉, 《中國語文學論集》 第23號, 2003.
- _____, 〈清代學者對《史記》體例의 研究〉, 《中國語文論譯叢刊》 第11輯, 2003.
- _____, 〈《史記》 三家注에 引用된 《說文》 初探〉, 《中國言語研究》 第16輯, 2003.
- _____, 〈《史記》의 文字 用例에 대한 考察〉, 《中國言語研究》 第18輯, 2004.
- _____, 〈清代學者對《史記》의 考證〉, 《慶州大論文集》 第18輯, 2005.
- _____, 〈《史記》 및 三家注의 文字 및 訓詁學的 價値에 대한 考察〉, 《國際言語文學》 第11號, 2005.
- _____, 〈文獻 整理를 통해서 본 三家注와 《史記》의 文獻的 價値〉, 《中國言語研究》 第23輯, 2006.
- _____, 〈《史記》 三家注를 통해서 본 《史記》 古今字 研究〉, 《東洋學》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第42輯, 2007.
- _____, 〈《說文解字注》에 引用된 《史記》 研究: 今本 《史記》와의 比較를 중심으로〉, 《中國學研究》 第45輯, 2008.
- _____, 〈《史記·列傳》에 보이는 通假字 研究〉, 《中國語文學論集》 第60號, 2010.

- _____, 〈三家注와 《史記·本紀》 通假字 研究〉, 《中國學》(대한중국학회) 第35輯, 2010.
- _____, 〈《史記》에 보이는 通假用例 研究〉, 《中國文學研究》 第41輯, 2010.
- _____, 〈《史記·列傳》을 통해 본 古今義語 用例 研究〉, 《東北亞文化研究》 第31輯, 2012.
- _____, 〈古漢語 研究와 《史記》 文獻 整理〉, 《比較文化研究》 第35輯, 2014.
- _____, 〈《史記》三家注에 보이는 文字 관련 訓詁의 考察〉, 《中國文學研究》 第56輯, 2014.
- _____, 〈《史記》 三家注의 校勘 研究〉, 《比較文化研究》 第38輯, 2015.
- 이인호, 〈數字化時代의校勘學思考:以《史記》數字文本爲例〉, 《中國小說論叢》 第21輯, 2005.
- 이강범, 〈崔適 《史記探源》의 辨僞와 晚清 今文經學의 終焉:《漢書》 및 《左傳》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中語中文學》 第53輯, 2012.
- _____, 〈清代 《史記》 研究의 二 方向:梁玉繩의 “志疑”와 崔述의 “考信”〉, 《中國語文學論集》 第101號, 2016.
- 박성진, 〈漢代 《史記》의 傳播에 대한 考察〉, 《中國文學研究》 第54輯, 2014.
- 당윤희, 〈《史記評林》의 評註에 대한 考察:〈漢高祖本紀〉를 중심으로〉, 《中國文學》 第109輯, 2021.
- 高爭爭, 〈論《史記·李將軍列傳》中“數奇”釋義之嬗變〉, 《中國語文論叢》 第105輯, 2021.
- _____, 〈《史記》“謗書”說之補論:以〈平準〉·〈匈奴〉·〈貨殖〉·〈遊俠〉四篇爲中心〉, 《中國語文學誌》 第77輯, 2021.
- _____, 〈《史記》對孔子的評價及其意義:孔子繫年文獻累書現象與司馬遷“尊孔”論研究〉, 《中國語文學誌》 第79輯, 2022.
- 吳相錦, 〈李善注《文選》引《史記》各家注及相關注釋芻議〉, 《中國學》

(대한중국학회) 第80輯, 2022.

금재원, 〈簡牘 時代 《史記》 寫本의 源流와 傳承 過程〉, 《中國古中世史 研究》 第63輯, 2022.

3. 《史記》의 語學 研究

許璧, 〈《史記》稱代詞與虛詞研究〉, 臺灣師範大學 國文研究所 博士學位論 文, 1974.

____, 〈研究《史記》語法的動機〉, 《中韓文化論集》(中華學術院), 1975.

____, 〈《史記》單位詞研究〉, 《延世論叢》(연세대) 第21輯, 1985.

____, 〈《史記》與《三國史記》의 比較研究 : 以第一人稱代詞爲中心〉, 《第 五屆世界華語文教學研討會論文集》, 1997.

____, 〈《史記》와 《三國史記》의 量詞 比較研究〉, 《東方學誌》(연세대) 第120號, 2002.

윤상림, 〈《史記》 被動文 類型 研究〉, 연세대 대학원 碩士學位論文, 1989.

신아사, 〈《史記》 三家注 音注 研究〉, 이화여대 대학원 碩士學位論文, 1998.

최남규, 〈《左傳》과 《史記》를 통해 본 秦簡의 語法 特徵〉, 《中國人文 科學》 第17輯, 1998.

허성무, 〈《史記》와 《三國史記》의 量詞 比較 研究〉, 연세대 대학원 碩 士學位論文, 2000.

현성준, 〈《史記》와 《三國志》 5種 否定文 文型 比較 研究〉, 《中國文 學研究》 第37輯, 2008.

이경규, 〈《史記》 成語의 背景에 대한 研究〉, 《中國語文學論集》 第48 號, 2008.

박영실, 〈前漢 時期 ‘見’, ‘爲’, ‘被’를 同伴한 被動文 研究 : 《史記列傳》 을 중심으로〉, 충북대 대학원 碩士學位論文, 2009.

이소동, 〈各類VP의指稱程度研究 : 以《史記·列傳》爲例〉, 《中國語文論叢》

- 第43輯, 2009.
- _____, 〈所介VP構造와 所(介)VP構造의 比較 研究: 《史記》를 중심으로〉, 《泰東古典研究》 第25輯, 2009.
- _____, 〈《史記》指稱化現象研究〉, 北京大學 中文系 博士學位論文, 2010.
- _____, 〈《史記》 無標記 陳述化 構造 研究〉, 《中國文化研究》 第20輯, 2012.
- _____, 〈古代中國語 動詞의 指稱性 研究: 《史記·列傳》 내 目的語 位置를 중심으로〉, 《中國語文論叢》 第79輯, 2017.
- 김윤정, 〈對象 讀者의 差異에 따른 中韓 翻譯 事例 分析: 스코포스 理論으로 본 《史記列傳》의 翻譯을 중심으로〉, 부산외대 통번역대학원 碩士學位論文, 2012.
- 백은희, 〈《左傳》과 《史記》의 比較를 통해서 본 二重他動構文의 變化 樣相〉, 《中國言語研究》 第55輯, 2014.
- 최태훈, 〈《漢韓大辭典》에 收錄된 《史記·列傳》 關聯 語彙 誤謬 研究〉, 《比較文化研究》 第40輯, 2015.
- _____, 〈《漢韓大辭典》에 보이는 몇 가지 誤謬 分析和 그에 따른 《史記·世家》 翻譯書 校勘〉, 《中國言語研究》 第64輯, 2016.
- _____, 〈《漢韓大辭典》에 收錄된 《史記·本紀》 關聯 語彙 誤謬 研究〉, 《東아시아文化研究》 第64輯, 2016.
- _____, 〈韓·中 《史記·書》 翻譯書 比較를 통한 《漢韓大辭典》의 세 가지 關聯 語彙 誤謬 分析〉, 《東아시아文化研究》 第70輯, 2017.
- 최순희, 〈韓國語와 中國語 程度副詞 比較研究: 司馬遷 《史記·三十世家》에 나오는 程度副詞를 중심으로〉, 강원대 대학원 碩士學位論文, 2016.
- 박원기, 〈《史記》 致使性 兼語構文의 確定 및 分類 問題 考察〉, 《中國語文論叢》 第81輯, 2017.
- _____, 〈《史記》 致使性 兼語構文의 構文論的 解釋〉, 《中國語文論叢》 第83輯, 2017.

사위국·이우철, 〈《史記》帶賓連謂結構的特徵和發展研究〉, 《中國文化研究》 第38輯, 2017.

김선화, 〈古代中國語 ‘感情類’ 心理動詞 研究 : 《論語》, 《孟子》, 《呂氏春秋》, 《史記列傳》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博士學位論文, 2021.

4. 《史記》의 文學 研究

이한조, 〈伯夷와 司馬遷 : 《史記》總序로서의 伯夷列傳〉, 《大東文化研究》 (성균관대) 第8輯, 1971.

_____, 〈《項羽本紀》에 대하여〉, 《淑大論文集》(숙명여대) 第12輯, 1972.

이장우, 〈《史記·伍子胥列傳》의 構成〉, 《東洋學》(단국대 동양학연구원) 第2輯, 1972.

홍순창, 〈司馬遷의 文學觀 : 《史記·屈原列傳》을 中心으로〉, 《中國語文學》(영남중국어문학회), 第3輯, 1981.

朴宰雨, 〈《史記》의 寫作技巧研究〉, 臺灣大學 中文研究所 碩士學位論文, 1982.

_____, 〈《史記》寫作技巧舉例探討〉, 《中語中文學》(한국중어중문학회) 第6輯, 1984.

_____, 〈《史記》寫作技巧의 抽樣分析 : 以〈項羽本紀〉與〈商君列傳〉爲例〉, 《中國研究》(한국외대) 第8輯, 1984.

_____, 〈《史記》寫作技巧의 抽樣分析 : 以〈留侯世家〉·〈田單列傳〉·〈李將軍列傳〉爲例〉, 《韓國外大論文集》 第18輯, 1985.

_____, 兪김, 〈《史記》中的 言語에 대한 試論⁴⁾〉, 《言語와 言語學》(한국외대) 第16輯, 1986.

_____, 〈《史記》의 文學的 性格과 그 特性 考察〉, 《韓國外大論文集》

4) 殷孟倫, 〈試論司馬遷《史記》中的語言〉, 《文史哲》(山東大學) 1956年 第1期.

- 第20輯, 1987.
- 金聖日, <《史記》修辭技巧研究>, (臺灣)高雄師範學院 國文研究所 碩士學位論文, 1984.
- _____, <《史記》褒貶義法淺談>, 《中國人文科學》 第6輯, 1987.
- _____, <《史記》譏刺技巧小考>, 《中國人文科學》 第8輯, 1989.
- _____, <《史記列傳》人物描寫技巧小考>, 《中國人文科學》 第11輯, 1992.
- _____, <《史記列傳》의 人物描寫技巧 研究>, 전남대 대학원 博士學位論文, 1994.
- _____, <《史記列傳》의 獨白描寫에 대한 小考>, 《中國現代文學研究》 第6輯, 1997.
- 임춘성, <《史記》 議論文의 內容과 技法 分析>, 한국외대 대학원 碩士學位論文, 1986.
- _____, <司馬遷의 文學理論과 文藝批評 : 《史記》 議論文을 중심으로>, 《中國學研究》(한국외대) 第3輯, 1986.
- _____, <《史記》 議論文의 修辭 技巧 分析>, 《中國語文論集》(부산경남 중국어문학회) 第3輯, 1986.
- 金苑, <《史記列傳》義法研究>, (臺灣)政治大學 中文研究所 博士學位論文, 1989.
- _____, <《史記》句法研究>, 《아시아文化研究》(경원대) 第5輯, 2001.
- 李寅浩, <《史記》文學價值與文章新探>, 臺灣師範大學 國文研究所 博士學位論文, 1991.
- _____, <《史記》人物描寫研究(1) : 《史記》人物描寫研究史略>, 《中國語文論叢》 第7輯, 1995.
- _____, <《史記》의 寓言的 性格 : 《莊子》 寓言과의 對比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 第2輯, 1995.
- _____, <《史記》引詩援文>, 《中國語文論叢》 第8輯, 1995.
- _____, <新論《史記·滑稽列傳》>, 《中國語文論叢》 第10輯, 1996.
- _____, <《史記》人物描寫研究(2)>, 《中國語文論叢》 第13輯, 1997.

- _____, 〈《史記·滑稽列傳》의 再評價 : 유머 價値의 認定과 유머집의 嚆矢〉, 《中國現代文學研究》 第6輯, 1997.
- _____, 〈《史記》의 文學的 研究 述評〉, 《漢文學研究》 第20輯, 1997.
- _____, 〈《太史公書義法》研究〉, 《中語中文學》 第21輯, 1997.
- _____, 〈《太史公書義法·序(1)》 譯解〉, 《中國語文論譯叢刊》 第5輯, 2000.
- _____, 〈《太史公書義法·序(2)》 譯解〉, 《中國語文論譯叢刊》 第8輯, 2001.
- _____, 〈《太史公書義法·引旨》 譯解〉, 《中國語文論譯叢刊》 第11輯, 2003.
- _____, 〈《太史公書義法·衷聖》 譯解〉, 《中國語文論譯叢刊》 第19輯, 2007.
- _____, 〈《太史公書義法·尊儒》 譯解〉,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4輯, 2009.
- _____, 〈《太史公書義法·宗經》 譯解〉,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9輯, 2012.
- 이성, 〈小說文學의 觀點을 통해 본 《史記·項羽本紀》 考〉, 《中國語文學研究論叢(魯城崔元植先生頌壽論文集)》(서울 : 學古房), 1991.
- 곽정식, 〈巨視的 觀點에서 본 《史記列傳》과 小說의 關係〉, 《論文集》(경성대) 第13輯 第3卷, 1992.
- 김성환, 〈司馬遷의 《史記》 研究 : 《史記》의 文體〉, 《全州大論文集》 第22輯, 1993.
- 권석환, 〈《史記》 傳의 장르적 考察〉, 《中國小說論叢》 第3輯, 1994.
- 이승진, 〈《史記列傳》 人物形象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碩士學位論文, 1994.
- _____, 〈司馬遷과 歐陽修의 文章의 異同에 대하여 : 傳記文學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 第17輯, 2005.
- 안진혁, 〈《史記》 人物傳記의 文章技法 研究〉, 국민대 대학원 碩士學位

論文, 1996.

- 심규호, 〈文藝心理學的 觀點에서 본 ‘發憤著書’: 屈原과 司馬遷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 第29輯, 1997.
- 김도연, 〈司馬遷 《史記》의 構成과 敘述技法〉, 《中國學論叢》(국민대) 第12輯, 1996.
- _____, 〈司馬遷 《史記》의 構成과 敘述方法〉, 《中國學論叢》(국민대) 第14輯, 1997.
- 홍상훈, 〈司馬遷의 敘事論〉, 《中國小說論叢》 第8輯, 1998.
- 박성진, 〈《史記》在傳記文學史上的地位〉, 《張家口師專學報》(張家口師範專科學校) 第2期, 1998.
- 김건옥, 〈司馬遷의 現實主義 文學 研究〉, 목포대 대학원, 碩士學位論文, 1998.
- 하을봉, 〈《史記》 중의 小說의 特性 研究〉, 한국외대 대학원 碩士學位論文, 1999.
- 金利湜, 〈司馬遷의文學理論與批評〉, 臺灣師範大學 國文研究所 碩士學位論文, 2000.
- _____, 〈《史記》及其傳記文學之研究〉, 臺灣師範大學 國文研究所 博士學位論文, 2005.
- _____, 〈司馬遷對屈原及其作品的批評〉, 《中語中文學》 第38輯, 2006.
- _____, 〈《史記·魏其武安侯列傳》析論〉, 《中國文學》 第57輯, 2008.
- _____, 〈《史記·衛將軍驃騎列傳》析論〉, 《中國語文學》 第76輯, 2017.
- _____, 〈‘伍子胥 이야기’의 繼承과 變容: 《史記·伍子胥列傳》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 第86輯, 2021.
- 고유신, 〈《史記》 戰爭 敘事文의 時代別 內容〉, 《中國研究》 第29輯, 2002.
- 권은영, 〈《史記》를 통해 본 司馬遷의 文學批評〉, 숙명여대 대학원 碩士學位論文, 2003
- 양중석, 〈《史記·列傳》의 重出事件 敘述 樣相〉, 서울대 대학원 碩士學位

- 論文, 2005.
- _____, 〈《史記·滑稽列傳》에 관한 諸 評價〉, 《中國文學》 第50輯, 2007.
- _____, 〈《漢書》의 《史記》 變容 樣相을 통해 본 史官의 글쓰기〉, 서울대 대학원 博士學位論文, 2012.
- _____, 〈班固가 다시 쓴 〈袁盎晁錯傳〉 : 《史記·袁盎晁錯列傳》과의 比較〉, 《中國文學》 第78輯, 2014.
- _____, 〈《史記·貨殖列傳》의 創作 目的〉, 《中國文學》 第83輯, 2015.
- _____, 〈《史記》 〈酷吏列傳〉의 漢 武帝 批判〉, 《中語中文學》 第70輯, 2017.
- _____, 〈司馬遷이 남긴 李陵에 관한 記憶〉, 《中國文學》 第96輯, 2018.
- _____, 〈《史記·伍子胥列傳》에 投影된 歷史 再編의 含意〉, 《中國語文學誌》 第72輯, 2020.
- _____, 〈中國 文學史의 《史記》 敘述 傾向 研究 : 記述 상의 問題點과 政治的 意圖를 중심으로〉, 《中國文學》 第102輯, 2020.
- _____, 〈皇帝의 男子들에 대한 記錄 : 《史記》〈佞倖列傳〉 小考〉, 《中國文學》 第110輯, 2022.
- _____, 〈懷才不遇한 人材에게 주는 助言 : 《史記》〈屈原賈生列傳〉의 行 間 읽기〉, 《中國散文研究集刊》 第12輯, 2022.
- 정효민, 〈《史記》의 文學性 研究〉,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碩士學位論文, 2006.
- 이장휘, 〈司馬遷文論譯注〉(節錄), 《中國文學理論》 第9輯, 2007.
- 이유진, 〈神話와 歷史 사이에서 司馬遷의 選擇과 그 意味 : 中國의 歷史 프로젝트를 바라보며 司馬遷을 생각하다〉, 《中國語文學論集》 第41號, 2007.
- 조은상, 〈傳統 樹立과 變異 過程을 통해서 본 史傳散文의 變遷史 概論 : 先秦에서 唐代까지〉, 《中國語文學》 第49輯, 2007.
- 김수경, 〈《史記》與《詩》關係의 研究概況〉, 《中國學論叢》(고려대) 第24輯, 2008.

- 김민호, 〈伯夷·叔齊는 본래 忠節의 象徴이었을까?: 《史記》 〈伯夷列傳〉 以前 伯夷·叔齊 이미지 考察〉, 《中國文學研究》 第75輯, 2019.
- 고광민, 〈《史記》 〈蘇秦·張儀列傳〉으로 본 蘇秦·張儀의 說得 方法 初探〉, 《中國語文學論集》 第118號, 2019.
- _____, 〈《史記·四君子列傳》에 나타난 褒貶 樣相 研究: 養士 關聯 記述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論集》 第124號, 2020.
- 김원중, 〈《史記》 〈屈原賈生列傳〉을 통해서 본 司馬遷의 治癒的 글쓰기 戰略: 發憤과 憐愍의 昇華 次元을 중심으로〉, 《東北亞文化研究》 第59輯, 2019.
- _____, 〈“孔子問禮於老子”句에 나타난 司馬遷의 敘述 視覺에 관한 몇 가지 檢討〉, 《韓中人文學研究》 第63輯, 2019.
- 심은경·김원중, 〈《淮陰侯列傳》의 文學的 敘事 構造를 통해서 본 司馬遷의 敘述 視覺 檢討〉, 《中國學》 第72輯, 2020.
- 趙東明, 〈《史記》人物形象研究: 以反秦悲劇人物陳涉·項羽·韓信爲例〉, 경남대 대학원 博士學位論文, 2021.
- 김광일, 〈義理의 誕生: 《史記》 〈刺客·豫讓〉 다시 읽기〉, 《中國學報》 第96輯, 2021.
- _____, 〈義士의 죽음, 烈女의 誕生: 《史記》 〈刺客·聶政〉 깊이 읽기〉, 《韓中言語文化研究》 第65輯, 2022.
- _____, 〈演行으로서 〈荊軻傳〉: 《史記》 〈刺客·荊軻傳〉 깊이 읽기(1)〉, 《中國學報》 第101輯, 2022.
- 김광일, 〈刺客의 誕生, 能力의 發見: 《史記》 〈專諸傳〉 깊이 읽기〉, 《中國語文論叢》 第110輯, 2022.
- 노상균, 〈《史記》에 보이는 耆老 形象 考察〉, 《中國學研究》 第100輯, 2022.
- 김희경, 〈清代 《史記》의 文學 正典化 樣相 연구: 方苞의 《史記》 理解와 實踐的 繼承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人文學研究》(원광대) 第23輯 第2號, 2022.

5. 《史記》의 歷史 研究

- 권종천, <《史記》 編纂과 韓國 史料에 관한 研究>, 《忠北大論文集》 第13號, 1972.
- 이성규, <《史記》에 있어서 歷史와 人間>, 《文理大學報》(서울대) 第29號, 1974.
- _____, <《史記》 歷史 敍述의 特性 : ‘文史一體’의 典型>, 《外國文學》 가을호, 1984.
- _____, <《史記》의 歷史 敍述과 文史一體>, 《中國의 歷史 認識》(서울 : 창작과비평사), 1985.
- _____, <司馬遷의 時間 概念과 《史記》의 敍述>, 《東方學誌》(연세대) 第70號, 1990.
- _____, <朝鮮 後期 士大夫의 《史記》 理解>, 《震檀學報》(진단학회) 第74號, 1992.
- _____, <朝鮮 學人의 《史記》 研究 2種 紹介>, 《서울대東洋史學科論集》, 1992.
- 홍순창, <《史記》의 世界>, 《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서울 : 일조각), 1979.
- 장인성, <司馬遷의 歷史 意識 : 《史記列傳》의 義를 중심으로>, 충남대 대학원 碩士學位論文, 1981.
- 유덕조, <《史記》 ‘太史公曰’의 한 意義>, 《史鄉》(공주사대), 1985.
- 김미정, <《史記》의 曆書 思想과 統治에 관한 研究>, 효성여대(현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碩士學位論文, 1989.
- 최병수, <司馬遷의 ‘成一家之言’에 대하여>, 《忠北史學》 第4輯, 1991.
- 이호영, <秦漢代 宗教 思想과 封禪 研究 : 《史記》 <封禪書>를 중심으로>, 서강대 대학원 碩士學位論文, 1992.
- _____, <《史記》와 易學>, 《西江人文論叢》(서강대) 第14輯, 2001.
- 박정진, <司馬遷 《史記》의 史論에 관한 研究>, 전북대 대학원 碩士學位

論文, 1994.

- 김갑균, 〈中國 古代의 天文觀과 司馬遷(《史記》)의 編纂 : 司馬遷의 “成一家之言”에 대한 一考察〉, 《論文集》(동신대) 第6輯, 1994.
- 이문규, 〈古代 中國 ‘天文’ 解釋의 原理 : 《史記·天官書》를 중심으로〉, 《東亞文化》 第35輯, 1997.
- 유해량, 〈《史記》의 歷史 敘述 方式과 歷史思想〉,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碩士學位論文, 2004.
- 김경호, 〈《史記》·《漢書》에 敘述된 經濟觀과 그 思想的 背景〉, 《中國史研究》(중국사학회) 第32輯, 2004.
- _____, 〈《史記》 〈貨殖列傳〉의 構成과 “自然之驗”의 意味〉, 《史林》(수선사학회) 第46輯, 2013.
- 오만중, 〈司馬遷 夏商周의 文明史觀 形成에 대한 小考〉, 《中國人文科學》 第35輯, 2007.
- 김병준, 〈漢이 구성된 古朝鮮 滅亡 過程 : 《史記》 〈朝鮮列傳〉의 再檢討〉, 《韓國古代史研究》 第50輯, 2008.
- _____, 〈《史記》 〈匈奴列傳〉의 ‘匈奴 前史’ 記錄 檢討〉, 《中央아시아研究》(중앙아시아학회), 第21輯, 2016.
- 배진영, 〈《河渠書》를 통해 본 司馬遷의 水利思想 : 帝國의 維持와 統合 機制로써〉, 《梨花史學研究》 第40輯, 2010.
- 최준하, 〈《史記》를 통해 본 歷史教育 : 紀傳體와 論贊을 중심으로〉, 《歷史와 歷史教育》 第21號, 2011.
- 박원호, 〈修訂版 《司馬遷 史記 : 中國古代社會의 形成》을 읽고〉, 《中國學論叢》 第37輯, 2012.
- 정지원, 〈《史記 列傳》과 《三國史記 列傳》·《오카가미 大臣列傳》의 比較 考察〉, 고려대 대학원 碩士學位論文, 2012.
- 김영환, 〈《史記本紀》에 나타난 ‘百姓’ 考釋 : 〈五帝本紀〉, 〈夏本紀〉, 〈殷本紀〉, 〈周本紀〉를 중심으로〉, 《中國學研究》 第65輯, 2013.
- _____, 〈秦代의 博士官 伏生 研究 : 《史記》에 나타난 伏生의 記錄을 중

- 심으로), 《中國學報》 第74輯, 2015.
- 문치웅, 〈《史記》 〈五帝本紀〉에 나타나는 人物關係 記錄의 問題點〉, 《東아시아古代學》 第40輯, 2015.
- 진명호, 〈《史記·張儀列傳》史事商榷一二〉, 《中國語文學論集》 第98號, 2016.
- 추미영, 〈司馬遷 《史記·貨殖列傳》 分析〉, 전북대 교육대학원 碩士學位 論文, 2016.
- 윤용구, 〈《史記》·《漢書》 注文의 ‘古朝鮮’ 關聯 記事〉, 《韓國古代史研究》 第85輯, 2017.
- 구본희, 〈忘却과 再創出: 《史記》 〈匈奴列傳〉에 記述된 戰國 燕의 領土 擴張과 東胡〉, 《東洋史學研究》 第140輯, 2017.
- 오현수, 〈《史記》 〈朝鮮列傳〉 記載 ‘秦故空地上下鞞’에 대한 檢討: 秦故 空地上下鞞의 空間的 範圍와 技能〉, 《韓國史學報》 第70輯, 2018.
- 조성훈, 〈《史記》 ‘濊貊朝鮮’과 ‘眞蕃朝鮮’에 대한 試論的 新論〉, 《歷史와 融合》 第5輯, 2019.
- 김진우, 〈中國 古代의 新出土 資料와 司馬遷 研究: 《張家山漢簡》二年律 令·史律을 중심으로〉, 《史叢》 第97輯, 2019.
- 윤대식, 〈《史記》, 帝國의 정의로움을 위한 辨明: 〈刺客列傳〉과 〈遊俠列傳〉에 內包된 暴力의 聖化와 公私 境界 짓기〉, 《韓國東洋政治思想史研究》 第18卷 第2號, 2019.
- _____, 〈古代 中國의 西進 戰略에 混在된 公私 동기의 實體: 《史記》 〈大宛列傳〉과 〈匈奴列傳〉을 통해 본 對外政策의 端緒들〉, 《韓國東洋政治思想史研究》 第20卷 第1號, 2021.
- 정재훈, 〈司馬遷이 그린 匈奴의 ‘眞相’과 後代의 理解: 《史記》 〈匈奴列傳〉 冒頭의 先祖와 遊牧 關聯 記錄의 再檢討〉, 《中央아시아研究》 (중앙아시아학회) 第25卷 第2號, 2020.
- _____, 〈《史記》 〈匈奴列傳〉의 建國 前史 構成〉, 《中央아시아研究》

第26卷 第2號, 2021.

- 이덕일, <《史記》〈五帝本紀〉黃帝 및 顓頊에 관해서>, 《歷史와 融合》(바른역사학술원) 第6輯, 2020.
- 송기섭, <司馬遷의 思想, 그리고 《史記》, 〈八書〉의 大意와 加·僞託 論難>, 《歷史와 融合》 第6輯, 2020.
- 민후기, <《史記》〈禮書〉와 三家注 解題와 譯註>, 《學林》(연세사학연구회) 第48輯, 2021.
- 이시율, <春秋戰國時代 《史記》 年表 修正에 관한 研究>, 《歷史와 融合》 第11輯, 2022.

6. 《史記》의 文化, 比較, 影響 研究

- 장기근, <《史記》의 人物學>, 《新東亞》(월간지) 第218號, 1982.
- 이영실, <讀書教育 資料로서 《史記》 列傳의 活用に 관한 研究>, 가톨릭대 교육대학원 碩士學位論文, 2011.
- 임춘영, <《史記·列傳》의 事例로 본 中國人의 體面 慣習>, 《中國學研究》 第59輯, 2012.
- 차미경, <《史記·項羽本紀》에서 京劇 《霸王別姬》까지 : 이야기의 變化와 文化的 受容>, 《中國文化研究》 第23輯, 2013.
- 정진걸, <隱居의 政治學 : 《史記》에 보이는 隱居를 對象으로>, 《中國文學》 第84輯, 2015.
- 김현주, <司馬遷의 《史記》를 活用한 意思疏通 教育 方案>, 《藝術人文 社會融合멀티미디어論文誌》 第8輯, 2018.
- 김승룡, <《史記》〈伯夷列傳〉에 대한 治癒的 讀法 : 怨望에 대한 省察>, 《讀書治療研究》(한국독서치료학회) 第12卷 第1號, 2020.
- 권운영, <실크로드에 관한 文化콘텐츠 스토리텔링 構成 研究 : 《史記》와 《漢書》를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第65輯, 2021.
- 이종민, <文明 帝國과 歷史의 持續性 : 《史記》에 대한 現代的 解釋>, 《中

國現代文學》 第103輯, 2022.

고광민, 〈《史記》 大衆化의 現況과 展望 : 《史記》 關聯 出版物을 중심으로〉, 《中國散文研究集刊》 第13輯, 2022.

* * *

정기돈, 〈《史記》와 《兩漢書》의 對外觀에 대하여 : 〈東夷〉, 〈朝鮮〉傳의 檢討〉, 《忠南史學》(충남대) 第2輯, 1987.

朴宰雨, 〈《史記》·《漢書》傳記文比較研究〉, 臺灣大學 中文研究所 博士學位論文, 1990.

_____, 〈簡論《史記》·《漢書》著述精神之分歧〉, 《中國語文學研究論叢(魯城崔完植先生頌壽論文集)》(서울: 學古房), 1991.

_____, 〈《史記》與《漢書》異同研究史略〉, 《當代海外漢學研究》(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997.

윤주필, 〈26史에 나타난 方外人傳의 展開 樣相(1) : 《史記》·《漢書》의 先例〉, 《中國語文學論集》 第11號, 1999.

최병수, 〈《史記》와 《尚書》의 相互關係 比較 考察 : 그 〈股本紀〉篇과 〈商書〉篇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史學報》 第9輯, 2004.

홍승현, 〈《史記·樂書》와 《漢書·禮樂志》를 통해 본 漢代 制樂의 實相 : 司馬遷과 班固의 制樂觀에 대한 分析을 겸하여〉, 《東方學誌》(연세대) 第140號, 2007.

박정련, 〈12律名의 意味와 傳承 現況에 대한 文獻 檢討 : 《國語》·《淮南子》·《史記》·《漢書》를 중심으로〉, 《人文研究》 第61輯, 2011.

박병섭, 〈《史記》 〈五帝本紀〉와 그의 典據(《大戴禮記》 〈帝繫姓〉, 《孔子家語》 〈五帝德〉, 《春秋》, 《國語》, 《尚書》) 사이의 比較 分析 : 천왕, 치우와 그의 신하 운사, 황제(1)〉, 《仙道文化》(국학연구원) 第11輯, 2011.

안예선, 〈史書의 《春秋》 繼承 意識과 文學性的 相關性 : 《史記》와 《漢書》를 중심으로〉, 《中國文學研究》 第43輯, 2011.

_____, 〈《史記》의 春秋 時期 敘事 考察 : 《左傳》과의 比較를 중심으로〉

- 로), 《中國學論叢》 第46輯, 2014.
- _____, 〈《漢書》 중 漢 武帝 以前 時期 敘事 考察 : 《史記》와의 比較를 중심으로〉, 《中國語文論叢》 第69輯, 2015.
- _____, 〈《資治通鑑》과 《史記》 比較 : 記事의 增補와 縮小·削除를 중심으로〉, 《中國文學研究》 第77輯, 2019.
- 양중석, 〈司馬遷이 敘述한 呂太后 이야기 : 《漢書·高后紀》와의 比較를 통한 《史記·呂太后本紀》 읽기〉, 《中國文學》 第76輯, 2013.
- _____, 〈帝國의 秩序 속에서 構築된 臣下 形象 : 《史記》·《漢書》의 〈循吏傳〉 〈酷吏傳〉 比較〉, 《中國學報》 第101輯, 2022.
- 정지만, 〈《史記》와 《漢書》에 나타난 秦始皇의 評價 比較 연구 : 焚書·坑儒 事件을 중심으로〉, 공주대 교육대학원 碩士學位論文, 2015.
- 정지현, 〈《漢書·酷吏傳》의 酷吏觀 分析 : 《史記》와의 比較를 중심으로〉, 《中語中文學》 第76輯, 2019.
- 이연훈·김원중, 〈比喩와 類推 및 心理를 活用한 子貢의 說得 커뮤니케이션 戰略 檢討 : 《論語》와 《史記》 〈仲尼弟子列傳〉을 중심으로〉, 《東北亞文化研究》 第64輯, 2020.
- 오향녕, 〈《史記》와 《歷史》에 담긴 記錄學의 基礎 : 歷史-人間[Homo Historicus], 司馬遷과 헤로도토스〉, 《記錄學研究》 第65輯, 2020.
- * * *
- 강혜선, 〈朴趾源 碑傳文의 作法과 《史記列傳》〉, 《敦巖語文學》 第11號, 1999.
- 조진곤, 〈韓·中 英雄列傳의 比較研究 : 《史記》·《三國史記》 所載 英雄列傳을 중심으로〉, 대구대 대학원 碩士學位論文, 2005.
- 서신혜, 〈《貨殖傳》의 物質觀이 우리 文人의 意識에 끼친 影響의 한 例, 曹鳳默의 〈孔方傳〉〉, 《語文研究》 第35卷 第4號(通卷136號), 2007.
- 윤지훈, 〈朝鮮 後期 文人의 《史記》 認識과 評價에 관한 一考 : 〈項羽本紀〉에 대한 諸家 批評을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第35輯, 2008.
- 진영미, 〈《韓國文集叢刊》 所載 《史記》·《漢書》 關聯 資料 考察〉, 《民

- 族文化》(한국고전번역원) 第33輯, 2009.
- 이현호, 〈晤堂 李象秀의 《史記》 評述에 대하여〉, 《東洋漢文學研究》 第31輯, 2010.
- 김소희, 〈中國本 《史記》·《漢書》의 朝鮮 流入과 編刊에 관한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博士學位論文, 2012.
- _____, 〈《史記英選》의 編纂과 刊行에 관한 研究〉, 《書誌學報》 第40輯, 2012.
- 윤현정, 〈《史記英選》의 編纂에 관한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 第68輯, 2016.
- 오주기, 〈朝鮮朝 文人の 秦始皇 人物評 研究: 《史記》 人物 批評의 한 事例〉, 성균관대 대학원 碩士學位論文, 2013.
- 박경남, 〈王世貞의 《史記》 認識과 繼承 樣相: 16·17世紀 朝鮮 文人들 의 《史記》 受容과 繼承 樣相과 關聯하여〉, 《大同文化研究》 第93輯, 2016.
- 양중석, 〈朝鮮 文인들이 본 《史記·貨殖列傳》〉, 《中國文學》 第89輯, 2016.
- 주연, 〈柳夢寅의 《史記》 典範化 認識〉, 《漢文學論集》 第57輯, 2020.
- 안대회, 〈朝鮮 後期 《史記》 〈貨殖列傳〉 注釋書의 文獻的 研究〉, 《大同文化研究》 第110輯, 2020.
- _____, 〈《史記》 〈貨殖列傳〉 注釋書와 그 修辭學的 注釋: 18世紀 朝鮮 의 注釋書를 중심으로〉, 《大同文化研究》 第113輯, 2021.
- 심은경·김원중, 〈〈閔翁傳〉의 敘事 構造에 나타난 《史記列傳》의 受容과 變容: 諧謔과 諷刺를 중심으로〉, 《東北亞文化研究》 第66輯, 2021.
- _____. _____, 〈〈閔翁傳〉의 '閔翁-話者' 構圖로 보는 諧謔과 諷刺: 《史記列傳》과의 比較를 檢하여〉, 《東北亞文化研究》 第68輯, 2021.

Ⅲ.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1년부터 2022년까지 50여 년 동안 국내에서 발표된 사마천과 《사기》 관련 연구논문은 무수히 많다. 연구논문의 전체 수량과 내용 면에서 볼 때, 국내 학자들이 이룩한 다양한 연구성과는 《사기》 연구의 학술적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서 국내 학계에는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양호한 연구환경이 조성되어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연구논문의 수량 못지않게 연구 주제의 다양성과 연구내용의 충실도 면에서도 상당한 이론의 깊이가 더해졌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박재우, 이인호, 김성일, 서원남, 김이식, 양중석 등과 같은 국내대학 중문학과 출신의 전문 《사기》 연구자(학위논문과 후속 연구논문의 성과 기준)들이 연이어 나오으로써 한국 《사기》 연구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열었을 뿐 아니라, 국내 관련 학계에도 비옥한 학술적 토양을 쌓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기》 연구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면 다음 지적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국내 학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후학들에게 훌륭한 연구성과와 견고한 학술적 토대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성과는 《사기》가 오랜 기간 학자들에게 고전으로 읽혀서인지는 몰라도 사서로서의 역사 관련 주제를 다룬 연구보다 문학작품으로서의 문학 관련 주제를 다룬 연구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편이다. 앞으로는 국내 학계에서 중국의 최초 정사인 《사기》 자체에 대한 다양한 역사 관련 주제를 다룬 깊이 있는 연구를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중 비교사와 한중 비교문학의 시각에서 《사기》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사기》와 《삼국사기》 또는 기타 한국 고대 사서 사이의 역사 성질 비교 문제, 《사기》의 체재와 내용이 한국 전기문학과 산문 및

한문 소설 등에 미친 영향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존하는 우리나라 고대의 각종 문헌에서 사마천과 《사기》 관련 1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정리하여 《사기》의 우리나라 수용과 전파 및 영향 등에 관한 연구를 더 많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선 시대 문인 학자들의 수많은 문집 속에 들어있는 사마천과 《사기》 관련 다양한 논술 자료를 찾아내어 상세한 검토를 거쳐 분석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역사학자 이성규가 조선 후기 사대부의 《사기》 이해를 주제로 연구논문을 한 편 발표한 적이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16세기 말 이후 조선 문인이 남긴 문집이 대략 1,200종인데, 그중 105종 문집에서 사마천과 《사기》에 관한 논술 500여 건을 찾아내었다. 또한, 이 500여 건의 논술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體制와 書藝論 관련이 364건, 文體와 文章論 관련이 26건, 考證과 注釋 관련이 26건, 褒貶과 評價 관련이 100건이다.⁵⁾ 이로부터 미루어본다면 수백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문인 학자들이 《사기》를 필독하고 연구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국내 관련 학계에서는 국외 저명학자의 사마천과 《사기》 관련 다양한 저서를 번역 소개한 적은 있으나, 그들이 발표한 학술논문을 번역 소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앞으로는 관련 연구자들이 중국과 대만 및 일본 등 국외 관련 학계의 연구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로 평가받는 학술논문을 국내 학계에 번역 소개할 필요가 있다. 연구성과 중심의 이러한 국제학술교류는 국내 학계에서 사마천과 《사기》 관련 연구의 장을 확대하고 신진연구자들에게 제때 새로운 학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중국 고대사회의 형성과 발전 역사를 기술한 정통 사서인 《사기》를 지속해서 번역하고 연구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국내에 전파하고 중국의 고대 역사 문화를 이해하는 단순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한국적 인문 정신’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중

5) 이성규, 〈朝鮮 後期 士大夫의 《史記》 理解〉: 《震檀學報》 第74號, 1992.

요한 공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국내 학계에서 사마천과 《사기》 관련 연구는 다각적 측면에서 지속해서 발전하고 더한층 진보하리라 믿는다.